

## 신춘문에 당선작

## 달의 꽃

정영효

## 단편소설

**황** 토색의 개천물이 금방이라도 수위를 넘을 듯 넘실거렸다. 봄부터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더니 금기가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다. 재난정보를 알리는 메시지가 복잡한 머릿속을 더 험클어 놓았다. 나는 세찬 비를 뚫고 필사적으로 운전했다. 들이받는 빗줄기 때문에 와이퍼는 무용지물이었다. 젖은 도로가 흡수해버린 빛으로 라이트조차 제 몫을 하지 못했다. 아내를 찾아야 했다. 가랑비만 내려도 온몸을 떨며 싫어하던 여자였다. 비 오는 날이면 아예 집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던 아내가 집에 없다. 저녁을 먹은 빈 그릇들은 설거지가 되지 않은 채였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그동안 오가던 이웃과 아내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이 빗속에 가긴 어딜 갔겠어요. 음식을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갔든가 아니면 급히 필요한 게 있어 상가에 갔겠지요.

## 아내를 찾아야 했다

## 가랑비만 내려도 싫어하던 여자였다

##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막 저녁상을 받던 참이었다. 아내의 머리가 고무줄로 짙은 묶여 있었다. 뺨가 불안할 때면 내내 머리를 뚫었다. 반찬이 놓인 접시들을 상에 놓으면서도 건성건성이었다. 아까부터 울리던 압력밥솥의 발랑거림이 멈추질 않았다. 누구집 밥 탄다며 농담조로 한마디 던졌더니 그때서야 가스레인지의 소화상태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자꾸만 텔레비전 화면 쪽을 힐끔거렸다. 채널마다 속보로 기상변화와 수해장면만 반복하고 있었다. 내내 밥알을 세고 있었다. 반찬 쪽으로는 도통 젓가락이 가지 않았다. 젓가락을 잡은 손마디를 바르르 떨기도 했다. 어디 아프나고 물어도 그저 고개만 가로 저을 뿐이었다. 비 때문이었지. 내 내내는 비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아** 내를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 몽골의 어느 승마체험 캠프장에서였다. 몽골여행을 결정할 때는 나름대로의 비장한 각오가 있었다. 회합과 절망 사이에서 완성하지 못하는 인생의 중간보고서에 마침표를 찍고 싶었다. 그곳은 몽골 동부의 빈데르 마을로 울훈강이 흐르는 초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초원과 강, 그리고 습지와 고산지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지역이었다.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단연 초원이었다. 지평선을 향해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끝없는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그 푸릇한 광장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었다가 돌연 흥분시키기도 했다. 바람의 방향과 속도는 풀과 꽃들을 조종하고 있었다. 수종이 몇 되지 않는 산지는 유지원생이 그려놓은 그림처럼 엉성했다. 나무 아래 돛은 시금치 잎을 닮은 풀이 차라리 풍성했다. 우리는 울훈강을 따라 트레킹 코스를 잡았다. 돌산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옛사원은 말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강을 따라가다 노천 온천을 발견했다. 물이 흐르는 강가의 자갈 틈에서 솟는 온천수를 티브이에서 본 것도 같았다. 온천이라기 보다 동태 목욕탕 작은 욕조 하나를 옮겨 놓은 듯했다. 강변에 흔한 돌무더기 사이에서 김이 몽글몽글 올라오고 있었다.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보자 전신이 나른해졌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노련한 스텝들은 짧은 시간에 캠프를 완성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 관광객이며 스텝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노천온천을 즐겼다. 일상을 떠나 이국땅에서 만난 낯선 풍경과 움직임이 느린 수증기는 일행을 유혹했다. 유일하게 스텝 중의 한 여자만 온천에 입장하지 않았다.

**비** 교적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승마체험장서 사라체력은 가이드를 하고 있었다.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나이도 국적도

가능하기 어려웠다. 승마체험을 위해 날아온 한국인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를 들려주었을 때 그녀가 동포임을 알게 되었다. 사라는 비교적 정확한 발음을 위해 애쓰는 빛이 역력했다. 승마체험을 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여행객들은 여자 가이드를 못미더워 했다. 하지만 곧 그들의 불신은 봄 눈처럼 힘없이 사그라졌다. 여행객들의 미덥잖음이 쌓인 눈이라면 그녀의 한국어와 승마실력은 내리쬐는 봄 햇살이었다. 말 방귀 냄새를 한국의 김치냄새와 비교하는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온천욕을 마치고 나오자 그녀는 일행들의 저녁식사를 준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작고 조용했다. 이미 노숙에 익숙한 듯 작은 동선만으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냈다. 모자를 벗어 늘어뜨린 머리카락이 노을 빛에 염색될 것 같았다. 그녀가 서 있는 위치와 나의 시선과의 각도에 따라 여러 색깔을 보여주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거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강가 돌무더기에 누워 하늘

를 바라보았다. 은하수처럼 보이는 별들의 모습이 흠뻑 젖어 있는 하늘은 아름다웠다. 맑은 밤하늘에 떠있던 달은 지상과 훨씬 가깝게 느껴졌다. 만유인력의 작용이 없다해도 서로 끌어당길 수 있을 것 같은 거리가 있었다. 우리 팀의 가이드 사라체체도 달을 보고 있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시선은 주지 않았다.

다음날은 초원지대를 지나게 되었다. 비교적 부드러운 풀이 자라고 온갖 야생화가 피어 있었다. 야생화 연구를 위해 일년에 서너 번은 다녀오는 지리산 노고단을 연상하게 했다. 나는 빛나는 모국어로 그녀에게 꽃 이름을 물어보았다. 민들레를 닮은 노란 금불초, 바늘꽃, 영경귀와 비슷한 절굿대꽃, 꿀풀처럼 생긴 꼬리풀, 그리고 송다리. 송다리는 에델바이스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녀는 가이드의 역할에 충실했다. 그녀가 말한 꽃이름들은 이미 나도 알고 있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토록 신비한 꽃이름들은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으로 하나하나 새겨 들었다. 빈데르 마을 초원에 생무지개 가 뜬 여행 마지막 날 나는 그녀에게 한국이름을 물었다. 그녀가 대답했다. 사라체체는 몽골어로 달의 꽃이라고.

**나**의 두 번째 몽골 여행 목적은 단순했다. 한국에 돌아와 달을 볼 때마다 사라가 생각났다. 꽃을 봐도 생각났다. 그러다 결국 달과 꽃을 동시에 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게르라고 부르는 몽골식 숙소 안에서 나의 여행 목적에 대해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달은 숨어버렸고 꽃은 떨고 있었다. 달과 꽃을 동시에 보고 싶어서 왔다는 나의 말에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몽골어를 내뱉었다. 게르가 살짝 흔들렸다. 원형의 천막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낯선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유목민들의 고유한 음악소리 같다는 생각을 했다. 천막은 보기보다 견고했고 비는 생각보다 감작적이었다.

몇 달 뒤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재회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이명화는 입국객중 맨 끝으로 케이트를 통과했다. 피로가 묻어났지만 밝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기 위해 몇 달을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입국 케이트를 통과시키기 위해 인맥을 동원했고 서류를 챙겼으며 여러 번 서명 날인을 해야 했다. 보험에 가입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사람처럼 예 라는 대답을 반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절차들이 귀찮거나 기분 상하지는 않았다. 사라체체가 이명화로 내 곁에 서있지 않은가? 그리고 모든 과정을 거친 우리는 액자 속에 담긴 결혼사진을 갖게 되었다. 현관에는 두 컬레의 신발이 놓이게 되었다. 손가락과 첫술도 두 개씩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에서 둘이 되었다. 그리고 사라체체 이명화는 나의 아내가 되었다.

**명**화는 한국생활에 적응하려고 애썼다. 늘 긴 차마를 즐겨 입었다. 보이지 않는 그녀의 발목 어디쯤에서 뿌리가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절대 들기지 않으려고 공공 감춰두고 있는 것이라고. 다른 여자들처럼 베란다에 흔한 화초 하나 키우지 않았다. 돌볼 자신이 없다고 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아예 활동을 멈춰버렸다. 베란다에서 꽃을 돌보는 대신 달을 보고는 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머리를 푹 뒹뒹이 수염 털란트시야 같았다. 치렁치렁 줄기를 늘어뜨리고 공중에 떠서 살아가는 뿌리 없는 식물이었다. 물을 주지 않아도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양분으로 기생했다. 외래종이었지만 환경에 잘 적응하는 식물이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태양을 보지 못한 음식식물은 퇴화된 햇물관을 품고 있기에 꽃을 피우지 못했다. 대신 그녀 자신이 꽃이었다. 달의 꽃.

집안 살림도 곧잘 했고 이웃들과 사이도 원만했다. 외출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뜬뜬하게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모임에도 참여했다. 외모나 언어 어느 것 하나 이주여성같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토박이도 아니었다. 어쩌면 친구가 필요할지도 몰랐다. 이주여성들끼리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틈이 놓여 있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서로 정보공유를 할 수 있었다. 모임에 다녀오는 날이면 말수가 늘었다. 조용하던 그녀에게 어떤 정보들은 말 많은 날을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도 종종 있었다.

설거지나 빨래를 할 때면 그녀의 손에는 어금없이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씻는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다. 샤워 후에는 원인 모를 발진이 일어났다. 모기에 물린 것 같은 붉은 두드러기가 생겼다. 금방 가라앉기는 했지만 따갑고 아픈 발진 때문에 불편해했다. 처음에는 환경변화에 적응하느라 물갈이를 하겠거니 생각했다. 사람이 어떤 것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흔한 일이나, 피부과 의사는 드물게 수성 두드러기 환자가 있던 하지만 명화의 경우는 다르다는 말 뿐이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공공 앉았다. 의사를 만나고 서적을 찾아 읽어보았지만 별다른 방법은 없었다. 습기에 약한 사람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비에 관한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에 관한 문헌은 없었다. 일말을 모르는 병엔 약도 없는 법이었다. 비만 내리면 머리를 묶어, 흰히 내보이는 이마

에 그늘이 앉았다. 어떤 때는 담당했지만 또 어떤 때는 숙연했다. 대부분의 날들은 썩썩했지만 어쩌다 한 번씩은 아팠다. 앓고 나면 다시 북북 털고 일어나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를 했다. 음식을 만들어 이웃에 나눠 주기도 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임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코 요란하지는 않았다. 명화의 나날은 그렇게 채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명화는 말 방귀 냄새가 그림다고 했다. 밤상위의 김치를 집다가 내던져진 말 방귀 냄새라는 단어에 한방 얻어맞은 듯 잠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명화가 내뱉은 단어의 의미를 재빨리 파악해야만 했다. 단지 말을 타고 싶다는 뜻인지, 떠난 곳인 그림다는 뜻인지 판단해야 했

## 내 이름을 건 원예치료센터를 내고

## 안정을 찾아갈 무렵이었다

## 신경외과 병동에 강습을 나갔었다

다. 나는 영악했다.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는 쪽을 택했다. 그리고 해답을 푼 던졌다. 명화야, 너는 머리를 풀어 길게 늘어뜨렸을 때까 제일 예뻐. 명화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누구나 자신이 떠나는 곳을 그리워한다. 하지만 그리워한다고 해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었니까. 심각하게 생각할 것 없잖아. 재야무리 먼 곳에 옮겨 심어졌어도 뿌리를 내리고 무성하게 성장하는 나무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머리카락을 치렁치렁 풀어헤치고 그렇게말야. 심각할 것 없잖아. 나에게 하는 자위의 독백은 명화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다. 그날 밤 명화는 베란다에 나가 오래도록 달을 보았다.

**나**는 풀과 나무를 옮겨 심는 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나무와 관련된 직업을 가졌으니 나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끔씩은 전문가도 어쩌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곤 했다.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건강하던 나무가 갑자기 시들시들해 죽는 경우가 있었다. 또 어떤 때는 뿌리 내림도 성장도 영 신통치 않다가 새로 터를 잡아 옮겨 심어주면 팔팔 살아나는 녀석들도 있었다. 오래 누워있는 환자의 병상에 새싹재배기를 놓아주면 치료의 예후가 좋아지기도 했다. 정서장애를 겪는 아이들에게는 토끼어리 만들기가 안정감을 가져다주었다. 우울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는 허브를 기

르게 하면 스스로를 치유해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이 일이 좋았다. 관엽 화분이나 축하, 근조 화환 배달이 쉽게 돈 되는 일인 줄은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어루만지며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식물 잎의 녹색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낙원의 이미지에 가장 근접한 색깔 것이라고 믿었다. 좁은 실내정원에서도, 물이끼를 입힌 동물모형에서도, 그냥 그릇에 담긴 물 위에서라도 식물들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어디에 심어든 적당한 조건만 맞는다면 그것들은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자극과 위안을 주었다. 풀과 꽃과 나무가 주는 안식으로 휘파람을 부르면 때였다. 그러나 사랑도 깊으면 병이 된

## 그림=김해성

- ▲조선대학교 미술대학과 동 대학원 회화와 졸업
- ▲'선과 색' '그림 새벽' '한국 미술협회' 회원
-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객원교수
- ▲고양시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상임위원

한 나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춰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여자는 화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관촬에 심취한 그녀는 오직 화분에만 시선이 쏠려 있었다. 문이 열리는 것도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알지 못했다. 내가 먼저 압축축을 하기에는 이미 늦어있었다. 방해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양손에 든 짐도 내려놓지 못한 채 나도 그녀를 관촬했다. 그 묘한 표정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음흉한 위장술 같기도 하고 서늘한 비웃음 같기도 했다.

일찍 왔네요, 재이씨. 내 목소리 톤은 의도적으로 높여졌다. 그녀에게 물 한 컵을 부탁했다. 정수기는 한층 내려가아 있었고 이번에도 역시 의도적이었다. 화분이 놓인 창가로 갔다. 배가 고프면 파리지옥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끈끈이주걱도 점액을 매단 채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방으로 펼쳐진 숲속에 달린 끈끈한 액체가 순간점착처럼 대상과의 간격을 없애버릴 것만 같았다. 꽃 주머니를 달고 있는 네렌데스는 창사리 내면을 보이지 않았다.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린 길쭉한 꽃주머니는 사냥을 위한 내밀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공간에는 꿀샘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한 나방과 리 두 마리가 있었다. 녀석들은 강한 소화액 속에 발을 담근 채 고미 중이었다.

가끔은 나도 꽃이나 나무가 되는 것 같았다. 평소에는 답답하게 자리를 지키다가 건들어 주면 간지럼을 타거나 향기를 내 품는 식물처럼. 그리고 재이는 가끔씩 나를 건들여 주는 손길 같았다. 나는 부끄러워 간지럼을 타기도 했으며 조용하게 품고 있던 향기를 날리기도 했다. 재이의 손길이 강렬해질수록 나는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었다. 그녀의 꿀샘은 익을 대로 익어서 단물이 푹푹 흘렀다. 나는 너무 뜨거워 녹아내렸다. 어떤 때는 형체조차 기억할 수 없었다.

재이의 열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조울증을 앓는 재이에게 울증의 상태가 찾아왔다. 그녀는 어떤 향기에도 감흥 했었고 어떤 소리에도 놀랐었다. 항상 먼저 행동하고 모든 현상에 기뻐했다. 웃음도 많았고 그만쯤 눈물도 흘렸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반대였다. 꿀벌 꿀어 올라 기화될 것 같던 그녀는 차가운 일음이 되었다. 사랑이 식었다거나 나를 위해 떠난다는 통속적인 말은 하지 않았다. 재이의 표정없는 얼굴이 타고 남은 재처럼 내 머릿속을 퍼들었다. 그런 그녀를 어찌할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웃 벗은 배롱나무 한 그루가 된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간지럼을 타지 않았다. 사막에서 모래를 밟는 것처럼 내 안에서 버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21면으로 계속〉